

[현대화 조준 개혁 재심화]

개방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2024년 8월 20일,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립항신구는 현판 5주년을 맞이했다. /해방일보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징에서 더 넓은 영역과 더 깊은 차원에서 탐색을 거듭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시험구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자유무역시험구 승격 전략 실시와 관련해 명확하게 포치하고 창조성, 집약식 탐색을 격려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웅대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자유무역시험구와 해남자유무역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선도로 하고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하며 대량의 기초적이고 창조적인 개혁 개방 조치를 다그쳐 제정해 개혁개방 종합시범 플랫폼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시험구 화물거래와 인적왕래에 '가속도'가 붙었다.

까스빠해, 흑해를 넘어 유럽의 중심지로 직행하는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섬서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출발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기존의 전통적인 해상운송보다 약 3분의 2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홀고스 (霍尔果斯)에서 우리 나라 첫 다국자유 무역구인 중국-까자흐스탄협력센터는 22개 폐쇄 통관검사 통로를 개통해 매일 평균 1만 7,000명이 이곳에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국토 면적의 1,000분의 4도 안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전국의 20.8%를 점하는 외국인 투자와 19.5%의 수출입을 실현해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새시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한 덕에 우리 나라는 잇달아 22개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고 동서남북중을 아우르고 연해, 내륙, 국경 연선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개혁개방의 새 구도를 형성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루계로 349개 제도 혁신 성과를 보급했다.

2023년, 습근평 총서기는 자유무역 시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난 10년간의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승격 전략을 깊이 실시하고 과감히 개혁혁신하며 꾸준히 난관을 공략해나가는 본보기가 되어 보다 넓은 영역과 더 깊은 차원에서 탐색을 거듭하며 자유무역 시험구가 시범 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승격 전략을 실시하며 해남자유무역항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제기했다.

올 들어 자유무역시험구의 고수준 건설이 빠르게 추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접목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해 등지에서는 피스톤 엔진 (复式活塞发动机), 차량용 변속기 등 62가지 재제조 제품의 수입 규제를 완화해 해마다 근 5억원의 무역액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자유무역항이 전 섬 세관 봉쇄 운행 공략기에 들어선 후 해외에서 정비작업을 마친 항공 엔진이 얼마전 다시 해구로 돌아왔다. 선박, 항공기의 일시적 출국 정비후 재입국 관세 면제 등 시범 조치에 부합되어 66만 3,200원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봉사업의 개방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첫 다국봉사업 시장 접근 제한 목록을 반포 실시하고 자연인 직업자격, 전문 봉사, 금융 등 분야에서 개방을 실시했다.

북경자유무역시험구는 경의 직업자격 승인 목록을 82개에서 122개로 늘였다. 새로 늘어난 승인 목록에는 인지도가 높은 회계, 의사 등 직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기, 화학 등 분야도 포함되어 근 400명의 국제화 인재를 유치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승격 전략을 실시하고 창조성, 집약식 탐색을 권장할 것을 제기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자체의 전략적 위치에 입각해 제도 혁신으로 발전 예비를 활성화하고 있다. 천진, 북경 등지에서는 디지털경제 등 중점 분야에 착안해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고 있다. 절강, 강소 등지에서는 대중상품, 생물의약 등 중점 산업을 둘러싸고 전반 산업사슬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접목한 자유무역시험구 첫 단계 33개 시범 조치가 모두 시행됐다. 상무부는 이 같은 시범 성과에 대해 총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의 '리더'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팬려원 월남공산당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부인 오방리와 차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부인 팬려원은 19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민방문에 동행한 월남공산당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또 량의 부인 오방리와 차담을 가졌다.

팬려원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과 월남 양국은 문학, 예술, 음식 등 분야에서 서로 통한다. 쌍방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여 중국과 월남 사이 친선사업의 발전이 추동되기를 기대한다. 월남은 녀아동과 부녀 교육을 포함한 부녀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쌍방은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할 수 있다. 쌍방은 량국 젊은 세대가 상대방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친선 감정을 증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신화넷

외교부 :

중국—월남 화물열차, 물류 운송의 새 통로



3월 8일 오전, 340톤의 전력철탐을 실은 중국—월남 화물열차가 광서좡족자치구 남녕국제철도항을 출발해 월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다. 이는 광서에서 첫 발차한 전력철탐 전용화물열차이다. /신화넷

최근 수년간 중국—월남 화물열차 운행시간이 현저히 단축되고 통관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량국 경제무역 왕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외교부 대변인 모녕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중국—월남간 호련호통이 나날이 긴밀해지고 올 1월—7월 신속 통관 화물열차의 월간 발송량이 3차례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8일, 월남 공산당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또 량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량국이 호련호통 협력 강화를 론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녕은 이같이 답했다.

모녕은 중국—월남 화물열차가 2017년 11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량국간 물류 운송의 새 통로가 열

렸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월남 화물열차는 D운행시간 단축 D통관 효를 향상 D중추 기능 최적화 D출입경 화물 품목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제무역 왕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모녕은 중국과 월남은 산과 강이 잇닿은 사회주의 이웃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량의 국민방문으로 량국 지도자가 각 영역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량국의 호련호통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월남 운명공동체 건설을 계속해 심화하고 내실을 다져 량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화넷

[국제시평]

필리핀은 남해 평화의 파괴자

필리핀 해경선 2척이 19일 새벽에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남사군도 선빈초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 현장 영상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선박은 중국측의 거듭되는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던 중국 해경선을 위협한 방식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했다. 중국 해경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현장 조치는 전문적이고 제한적이며 규범적이었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인애초, 황암도에서 '일탈'이 잦았던 필리핀은 선빈초를 겨냥하고 있다. 이 섬은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이자 무인도로 중국의 고유 령토이다. 선빈초는 인애초에서 불과 7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해운항로의 중요한 고비이자 남해 동부의 안전과 안정의 초석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이 섬을 장

악하려고 해왔다.

필리핀은 중국의 령토주권을 침해하고 또 한번 말을 뒤집고 배신했다. 6월말 이후 외교·해경간 해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 해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도 남해를 계속 휘젓고 역의 세력을 끌어들여 지역 문제에 개입시키는 '모험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남해행동준칙>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 실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 역외 강대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남해 문제에서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반격을 당할 것이다.

필리핀은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선박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와 오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제방송



3일, 로씨야 하바롭스크와 강을 사이두고 마주보고 있는 흑룡강성 무원통상구를 찾은 로씨야 관광객. /신화넷

흑하시는 흑룡강을 사이에 두고 로씨야 블라고베센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2023년 9월 중국과 로씨야간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이 재개된 후 흑하시는 다국간 관광이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제 블라고베센스크 시민들에게

흑하 새벽시장 방문은 일상이 됐다. 한 시민은 "흑하의 음식이 싸고 신선해 자주 방문한다."고 밝혔다.

새벽시장뿐만 아니라 야시장도 인기가 있다. 매장에는 중국어와 로어 이중 언어 간판이 걸려있고 로어에 능통한 상인도 많다. "나는 중국어를 못하지

만 이곳에선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로씨야 관광객 올렉의 말이다.

블라고베센스크에서 온 젊은 부부는 간식과 옷 쇼핑을 하러 야시장을 자주 방문한다면서 페리 (渡轮)를 타고 돌아갈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신화넷